



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린 캐나다 국제 스케이트 대회에서 캐나다의 베네사 크론과 폴 피외리에르 듀오가 환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얼음판 녹이는 환상의 몸짓

## 고교축구 최대어 '광양 루니' 이종호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 입는다

고교축구 최대어 '광양루니' 이종호(사진·광양제철고)가 전남 드래곤즈 유니폼을 입는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지난달 29일까지 클럽 우선 지명선수 명단을 접수 받은 결과 총 43명이 지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11명은 2011시즌 입단하고 32명은 대학에 진학한다. 2007~2009년 기존 우선지명선수 중 2011년에 입단하는 신인선수는 총 7명이다.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과 2010 AFC U-19 챔피언십에서 맹활약하며 올 시즌 고교야구 최대어로 손꼽혔던 이종호는 전남의 선택을 받았다.  
 이종호가 내년 시즌 전남 선수로 뛰게 됐지만 광양제철고 오세령(한양대), 고병욱(아주대), 윤주열(인천대)은 대학진학을 선택했다.  
 광주FC는 유소년 클럽인 금호고의 홍태근(홍익대), 조진홍(아주대), 권영호(명지대), 주정우(경기대) 등을 지명했지만, 이들



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구단별로는 제주, 서울, 수원, 포항, 전남, 광주가 각각 4명을 지명해 우선지명 최대 인원을 모두 채웠다. 또 전북, 성남, 울산, 대전, 대구는 3명을 지명한 가운데 경남이 2명을 선택했고 부산과 인천은 나란히 1명만 지명했다.  
 한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흥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인선수 지명순서는 전남도 팀 성격과 관계없이 전 구단이 추첨으로 정한다.  
 신생구단 광주 FC의 우선지명 선수 14명은 2일 공식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배구 'AG 금빛' 보인다

### 세계선수권서 中 3대0 완파

광주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선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신바람'을 내면서 메달 전망을 밝히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 일본 오사카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3-0(25-22 25-23 25-23)으로 중국을 완파했다.  
 조별리그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선보인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3연승을 달렸다.  
 대회 초반 캐나다와 도미니카공화국을 물리쳤지만 그때도 중국을 꺾으리라는 예상은 쉽지 않았다.  
 중국은 2002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국제대회에서 한국을 만나 15전 전승을 올렸다.

그러나 박삼용(인삼공사) 대표팀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중국의 조직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컨디션도 완전치 않아 보인다"면서 선수들에게 "중국을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선수들은 실력으로 답했다.  
 중국을 격파한 일등공신은 대표팀 주포 김연경(일본 JT 마블러스)이었다.  
 김연경은 중국과 경기에서 서브 에이스 1개를 포함해 24점을 폭발하며 "만리장성"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 이번 대회에서 스파이크 성공률 2위(52.34%), 득점 3위(63점)를 달리며 세계적인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지난 아시아배구연맹(AVC)컵까지 박삼용 감독은 김연경의 리시브 부담을 덜고자 라이트로 전환하는 실험을 했지만 공격이 오히려 주춤해져 이번 대회부터는 본래의 위치로 되돌렸다.  
 /연합뉴스

## AG야구대표 몸 덜 풀렸나

### KIA1.5군에 4대6 패배

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노리는 야구 국가대표팀이 소집 후 첫 연습경기를 치러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조범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연습경기(7회)에서 류현진(한화), 윤석민(KIA) 등 주축 투수와 추신수(클리블랜드), 이대호(롯데) 등 중심타자를 두루 기용하며 합속 훈련의 성과를 실재했다.  
 그러나 7회까지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KIA에 4-6으로 저 패조의 스타트를 끊지는 못했다.  
 대표팀은 이날 일본 시리즈에 참가한 김태관(지바 롯데)을 뺀 주전 타자 전원을 선발 라인업에 내세웠다. 정근우(SK)를 토타자로 기용했고 추신수-이대호-김현수(두

산)를 클린업트리오에 포진시켰다. 베테랑 안방마님 박경완(SK)이 포수 마스크를 썼다.  
 선발 투수로는 13일 아시안게임 첫 상대인 대만과 경기에 출격할 예정인 에이스 류현진이 나섰다. 윤석민과 고창성(두산) 등이 이어 던졌다. 조동찬(삼성), 김강민(SK), 강정호(넥센)는 2군 위주로 구성된 KIA 타선의 1~3번에 배치됐다.  
 지난달 25일 소집돼 합숙 훈련에 돌입한 대표팀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모습이었다. 투수들의 구속은 정규시즌 때보다 10km 가까이 떨어졌고 타자의 스윙이나 집중력도 평소와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불펜피칭을 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류현진은 아직 정상 컨디션에 오르지 못한 듯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이사진 사실상 총사퇴

광주 체육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체육회 구성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진 42명이 체육회장에 재선임 여부를 묻기로 결의해 사실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체육회는 1일 오후 2시 업무체육관 중회의실에서 제 106차 이사회의를 열고 현 이사진의 재선임 여부를 시 체육회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에 묻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정록 광주시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은 "현 이사진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아있지만 강운태 시장이 새로운 체육회장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재선임을 묻는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며 "광주시체육회 이사 재선임 요청 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별다른 반대편견이 개진되지 않았다.

## 임기 2년 남긴채 강운태 시장에 재선임 여부 묻기로 상임 부회장·생활체육회장 등 집행부 교체 가능성

체육회 상임 부회장과 광주시생활체육회장,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체육회 안팎에선 강운태 시장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인선위원회 등을 만들어 새로운 집행부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씨 등 체육계 핵심인사들

이 새로운 집행부 간부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와 함께 "광주야구협회 심판이사가 공석인데 자리가 없는 전 심판이사가 심판 배정 등을 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15개 정도의 대회가 치러

한편, 이사회는 월드컵 응원전 공공요금과 소년체전 출전비 등에 따른 1억1534만원이 증액된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광주 상무불사조 축구단 해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자로 현 축구단 사무국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광주시민구단인 광주 FC가 상무 축구단의 물품 등을 인수인계해 12월 16일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고교야구 심판 승부 조작 논란

광주시 야구협회가 승부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1일 광주야구협회 소속 심판 A모씨가 1일 광주일보 앞 야구용품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와 올해 광주에서 열린 전국야구 대회에서 심판들이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15개 정도의 대회가 치러

지는 데 '심판 목록비'를 명목으로 50~100만원의 돈이 오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광주야구협회 심판이사가 공석인데 자리가 없는 전 심판이사가 심판 배정 등을 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이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고 말했다.  
 광주시 야구협회는 "지난해 심판 관정 는

란이 벌어진 뒤 심판부를 정비 했고, 전국대회의 경우에는 대한야구협회에서 감독관이 내려와 관리·감독을 하고 공정하게 경기가 진행돼 모범적인 대회로 인정을 받았다"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 뒷거래가 밝혀질 경우 철저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야구협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대처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무인텔**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